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박성권¹, 김해숙^{2*}

¹광주정신재활센터 수련생, ²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The Effects of Job-seeking stress on Somatization Symptoms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Seong-gwon Bak¹, Hae-sook Kim^{2*}

¹Trainee, Gwangju Mental Rehabilitation Center

²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o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정서조절 곤란이 취업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측정 변인 간의 경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였다. 첫째, 취업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경로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취업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경로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취업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경로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정서조절곤란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취업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대학생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결국 신체화 증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취업스트레스,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정서조절곤란, 신체화 증상,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omatization symptoms and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self-focused and emotional dysregul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SPSS 21.0 and AMOS 21.0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path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First, maladaptive self-focused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omatization symptoms. Emotional dysregul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omatization symptoms. Second, maladaptive self-focused and emotional dysregulation partial dual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omatization symptoms. It suggests that college students with job-seeking stress tend to be maladaptive self-focused, therefore they have difficulty in emotion regulation and eventually expose somatization symptoms.

Key Words : Job-seeking stress,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Emotion Dysregulation, Somatization Symptoms, Mediating Effects

*Corresponding Author : Hae-sook Kim(2015154@honam.ac.kr)

Received March 22, 2021

Accepted June 20, 2021

Revised June 8, 2021

Published June 28, 2021

1. 서론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은 대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로 인해서 채용공고가 작년대비 32.7% 감소하였고[1], 기업들의 2020년 채용규모도 44%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2]. 갑작스러운 변수로 크게 위축된 취업시장과 만성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대학생들은 자신의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욕구충족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힘들어져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중 취업 스트레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따라서, 취업스트레스가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축적된다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취업스트레스란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대학생활 중에 심리적, 신체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긴장감, 위기 또는 불안울 느끼는 상태를 일컫는다[4]. 스트레스는 적절한 경우 자극이 되어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불안이나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신체증상이나 다양한 정신질환의 촉발 요인과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5,6].

일반적으로 발달단계상 대학생 시기는 신체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신체화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7]. 선행연구에 따르면 발달단계에 따라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서로 신체화 증상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신체화 증상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며[8], 유사한 문화권의 일본, 중국 대학생들과 비교하여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신체화(somatization)란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이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며 이로 인한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는 현상을 말한다[10]. 신체화 증상은 불면증, 어지러움, 만성피로, 구토, 성기능장애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11]. 신체화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36~83%가 실업상태에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손상이 심각하다[12-14].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신체화증상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취업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며 두 변인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신체화 증상의 유발 및 유지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 인지, 정서 등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정서조절곤란이 신체화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15-17]. 정서조절은 정서를 인지하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것을 뜻하며,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며 목표를 지향하는 능력, 목표와 상황에 맞게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고 정서조절 전략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통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서조절의 실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정서조절곤란(emotion dysregulation)이라고 한다[18]. 정서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렬한 생리적 반응이 드러난다[19]. 부정적인 정서를 내부에 담아놓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명명하기 어려워하고 정상적인 신체감각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이를 신체적 질병의 신호로 잘못 해석한다[20]. 그 결과 신체화 증상 및 개인의 부적응이 초래된다[21,22].

한편, 정서조절과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변인으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주목받고 있다[23-26]. 자기초점주의란 주의(attention)의 방향이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외모, 느낌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의미한다[27].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주의 자체의 문제보다 자신에게 주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기울이는지에 따라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6,28]. 자기초점적 주의의 하위 요인인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자신의 특정 측면에 주의를 과도하게 기울이며 다른 측면으로 주의를 전환하기 어려운 몰입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개인의 선택적 주의와 과도한 지각은 신체 감각을 부정적 방향으로 해석하게 하며, 신체화 증상이나 건강 염려를 야기하게 된다[29,30]. 또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자신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자신의 내적인 감정과 사고에 대해 알아차리기 어렵다[31]. 이러한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등에 대한 내적 경험과 생리적 자극에만 초점을 두고 집중하여 적절한 주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32], 이것이 만성화 되어 정서조절곤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내적 귀인할 가능성이 높다[33].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내부 문제로만 주의를 맞춰지고 외부로 전환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다[34]. 특히 스트레스 중에서도 오늘날의 과도한 경쟁 문화와 열악한 취업 여건으로 인해 사회적 요구를 강요받는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대학생들은 높은 기준과 스펙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다[35,36]. 이러한 압박감은 결국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며 사회적 문제를 자신의 내부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부적응적인 자기초점문제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취업스트레스,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정서조절곤란, 신체화증상 변인들 중 일부의 관계만 단편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신체화증상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최근까지 이루어졌으나[7,37-39] 현재까지는 신체화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정서조절곤란이 취업스트레스와 신체화증상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규명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심한 취업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가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취업스트레스는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취업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매개할 것인가?

연구문제 3. 취업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할 것인가?

연구문제 4. 취업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정서조절곤란의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인가?

한편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각각의 모형을 비교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인지적 특성으로 취업스트레스와 상관없이 다른 성격, 환경적 변인에 의해 형성되고 정서조절곤란과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각각 독립적으로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신체화 증상으로 이어지는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5. 취업스트레스,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개별적으로 정서조절곤란을 매개하여 신체화 증상으로 이어질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설문조사는 4년제 대학(원)에 재학 중인 2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2020년 8월 18일부터 30일 까지 약 2주간 구글 설문지 양식을 사용하여 전남, 광주, 경기, 서울 지역의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브리타임)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응답한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학술적인 용도로만 자료를 사용하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응답받은 설문지 중 연구에 동의하지 않았던 3부를 제외한 나머지 237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 소프트웨어[40]를 활용하여 도출한 최소표본크기인 119명(예측변수 3개,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 .15, 검정력 .95)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이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2.47세(SD = 2.12)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n=237)

Variables	Response frequency(%)		
gender	male	99	41.8
	female	138	58.2
area	gwangju, jeonnam	139	58.6
	gyeonggi, seoul	98	41.4
	first	66	27.8
education	second	58	24.5
	third	56	23.6
	fourth (graduate)	55(2)	24.1
	natural engineering	99	41.8
major	humanities :social	65	27.4
	business :economic	26	11
	medicine :pharmacy	30	12.7
	art :physical	15	6.3
	etc	2	0.8
total	237	100	

2.2 측정 도구

2.2.1 신체화 증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신체화 증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Han, Jeon, Tak, Lee(1993)가 개발한 신체화 증상척도(Somatic Symptoms Scale : S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1주 안에 신체 증상들을 어느 정도로 경험했는지 확인하는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통, 불면증, 소화, 심장 질환과 관련한 4가지 영역을 포함하며, 5점 Likert 척도(1=전혀 없다, 5=아주 심하다)로 평정된다. 해당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2019)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는 .94이다.

2.2.2 취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rnell Medical Index: CMI)을 기초하여 Hwang(1988)이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Gang(2006)가 수정·보완한 취업스트레스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가족환경 스트레스 5문항, 성격 스트레스 6문항, 학업 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 스트레스 3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 4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22개의 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1점=매우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Yoon(2019)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94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는 .93이다.

2.2.3 정서조절곤란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정서조절곤란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 DERS)를 Cho(200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DER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6개 문항으로 이뤄졌으며,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국판 DERS의 요인구조는 5요인이 더 적절하다는 보고[41]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충동통제곤란 5개 문항, 정서 이해 부족 7개 문항,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7개 문항,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5개 문항,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3개 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개의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Ji와 Cho(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92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Cronbach α)는 .93이다.

2.2.4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Lee와 Kwon(2005)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인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SDSA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몰입 21문항과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9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자기초점 주의는 주의가 자신의 여러 측면에 적절하게 할당되는 지를 측정하는 반면, 부적응적인 자기초점주의는 주의가 자신의 특정부분에 과도하게 쏠려 외부로 주의를 전환하기 어려운 특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몰입을 측정하는 21문항만 사용하고자 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와 Kwon(2005)의 연구에서 제시된 자기 몰입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는 .94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는 .93이다.

2.3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기초자료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내적합치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규분포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 값과 첨도 값을 살펴보았다.

셋째,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성별과 학년에 따른 변인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하여 각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들을 잘 구인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이어서 각 잠재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식 모델링에서는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다수의 모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

구모형 외에 경쟁모형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모델 적합도 비교, χ^2 차이 비교를 통해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였다.

여섯째, 각 변인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일곱째, 다중매개모형의 개별 경로에 대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s)를 이용하여 각각의 개별 경로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취업스트레스,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정서조절곤란, 신체화 증상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취업스트레스는 평균이 49.04(SD=15.66),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평균이 46.64(SD=15.20), 정서조절곤란은 평균이 68.25(SD=17.05), 신체화 증상은 평균이 40.89(SD=15.51)이다.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절대값 2와 7을 초과하지 않아야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데[42], 모든 변인의 왜도는 .03에서 1.47 사이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60에서 2.35 사이의 값을 나타내어 정상분포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다.

3.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취업스트레스,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정서조절곤란, 신체화 증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취업스트레스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r=.44, p<.001$), 정서조절곤란($r=.43, p<.001$), 신체화 증상($r=.4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정서조절곤란($r=.52, p<.001$), 신체화 증상($r=.5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정서조절곤란은 신체화 증상($r=.4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3 성별과 학년에 따른 변인 간의 차이

선행연구[17]에서 나타난 성차를 고려하여 성별에 따라 변인들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는 분석 결과 신체화 증상($t=-1.98,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점수가 높았다. 정서조절곤란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t=.02, p=.07$),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인 충동통제곤란($t=-2.64, p<.01$),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접근제한($t=-2.33, p<.05$)에서 성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점수가 더 높았다. 따라서 통계분석시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학년이 취업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43]를 고려하여 학년과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F=10.06, p<.001$)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cheffe 사후검증에 의한 학년별 비교를 보면 1학년 보다 3학년($F=-9.42, p<.01$), 4학년($F=-14.37, p<.001$)이 취업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계분석시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job-seeking stress,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Emotion Dysregulation, Somatization Symptoms

	Job-seeking stress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Emotion Dysregulation	Somatization Symptoms
Job-seeking stress	1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44***	1		
Emotion Dysregulation	.43***	.52***	1	
Somatization Symptoms	.49***	.56***	.47***	1
M	49.04	46.64	68.25	40.89
SD	15.66	15.20	17.05	15.51
skew	.73	.40	.03	1.47
kurtosis	1.06	-.60	-.60	2.3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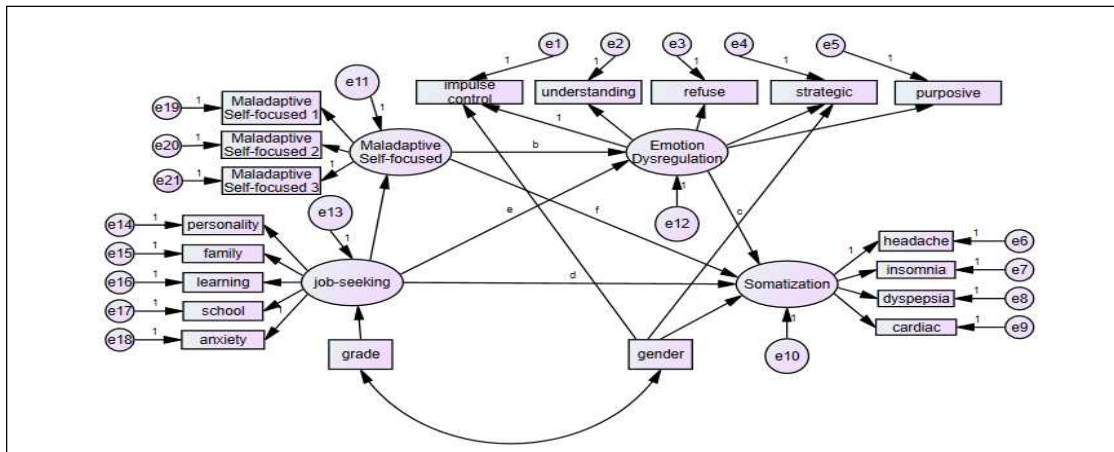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path coefficients

3.4 측정모형 검증

3.4.1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관측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에는 취업스트레스,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정서조절곤란, 신체화 증상의 총 4개의 잠재변인과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총 15개의 관측변인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중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사용하였다. 문항꾸러미를 사용하면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가 감소하여 더욱 안정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44]. 본 연구에서는 문항꾸러미 제작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문항 꾸러미의 전체 요인 부하량이 비슷해지도록 문항을 묶어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3개의 측정변인(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1,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2,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3)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는 CFI=.967, NFI=.931, TLI=.960, RMSEA=.060로 나타나서 일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라고 판단하는 기준인 CFI<.90, NFI<.90, TLI<.90, RMSEA<.10을 충족하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4.2 측정모형의 요인 부하량

측정요인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취업스트레스가 .60~.86,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91~.94, 정서조절곤란이 .51~.91, 신체화 증상이 .61~.88으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5이 넘어야 한다는 기준에 충족하였으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17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이론적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3.5 구조모형 검증

3.5.1 구조모형 검증, 경로 검증

모델의 적합도를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본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957, NFI=.914, TLI=.949, RMSEA=.061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모든 경로에 대한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Fig. 1에 제시하였다.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취업스트레스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beta=.48, p < .001$), 정서조절곤란($\beta=.28, p < .001$), 신체화 증상($\beta=.29, p < .001$)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정서조절곤란($\beta=.42, p < .001$), 신체화 증상($\beta=.39, p < .001$)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서조절곤란은 신체화 증상($\beta=.15, p < .05$)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3.5.2 경쟁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로 이어지는 경로를 직접적으로 밝혀 낸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취업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간의 직접경로를 제거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경

쟁모형의 CFI, NFI, TLI는 모두 .09 이상이고, RMSEA는 .10이하로 나타나 경쟁모형은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럴 때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내포된(nested) 관계에 있기 때문에 χ^2 차이검증($\Delta\chi^2$, Δdf)을 사용하여 비교할 수 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자유도 차이 값은(Δdf)은 1이었으며 χ^2 의 차이 값($\Delta\chi^2$)은 49.987로 나타났다. $\Delta df=1$ 일 때 유의한 $\Delta\chi^2$ 값은 3.84이므로 두 모형간의 χ^2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 자유도 값이 더 작은 모형을 보다 좋은 모형으로 판단함으로 연구모형이 더 좋은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3.6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의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하였으므로 경로 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구간 95%에서 원자료(N=237)를 5000번 반복하여 모수를 추정하도록 설정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에서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취업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으로 향하는 직

접효과($\beta=.29$, $p<.001$)가 유의하였으며,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정서조절곤란을 통한 간접효과($\beta=.26$, $P<.001$)는 하한 값 .18, 상한 값 .36로 나타나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취업스트레스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beta=.48$, $P<.001$), 정서조절곤란($\beta=.28$, $p<.001$)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취업스트레스는 두 가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취업스트레스가 정서조절곤란으로 향하는 간접효과($\beta=.20$, $P<.001$)도 하한 값 .13, 상한 값 .3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유의하였고,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신체화 증상으로 향하는 간접효과($\beta=.39$, $P<.001$)도 하한 값 .01, 상한 값 .1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3.7 개별 매개효과 검증

구조방정식 모델링(SEM)에서 부트스트래핑의 결과로 제시되는 간접효과는 다수 변인의 간접효과가 더해진 값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매개변인의 매개효과를 구분하여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3]. 본 연구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으로 향하는 간접효과($\beta=.26$, $P<.001$)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정서조절곤란의 매

Table 3. Goodness-of-fit index of structural and competitive models

model	χ^2	df	CFI	NFI	TLI	RMSEA
research	269.843	143	.957	.914	.949	.061
competition	319.830	144	.941	.898	.930	.072

Table 4.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of structural model (value is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N=237)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job-seeking stress → Maladaptive Self-focused	.48***	-	.48***
job-seeking stress → Emotion Dysregulation	.28***	.20*** (.13~.30)	.48***
job-seeking stress → Somatization Symptoms	.29***	.26*** (.18~.36)	.55***
Maladaptive Self-focused → Emotion Dysregulation	.42***	-	.42***
Maladaptive Self-focused → Somatization Symptoms	.39***	.06* (.01~.13)	.45***
Emotion Dysregulation → Somatization Symptoms	.15*	-	.15*

*** $p<.001$, * $p<.05$

Table 5. Individual mediating effect (non-normalization factor)

path	β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job-seeking stress → Maladaptive Self-focused → Somatization Symptoms	.24***	.135	.389
job-seeking stress → Emotion Dysregulation → Somatization Symptoms	.05*	.004	.110
job-seeking stress → Maladaptive Self-focused → Emotion Dysregulation → Somatization Symptoms	.04*	.003	.081

*** $p < .001$, * $p < .05$

개효과가 더해진 결과 값이다. 따라서 두 매개변인의 개별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취업스트레스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거쳐 신체화 증상으로 가는 간접효과($\beta = .24$, $P < .001$)는 하한 값 .135, 상한 값 .389으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고, 취업스트레스가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신체화 증상으로 가는 간접효과($\beta = .05$, $P < .05$)는 하한 값 .004, 상한 값 .110으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또한 취업스트레스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신체화 증상으로 가는 간접효과($\beta = .04$, $P < .05$)는 하한 값 .003, 상한 값 .081으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이중매개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4. 논의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간의 관계를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신체화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신체화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화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4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정서조절곤란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조절곤란의 하위변인인 충동통제곤란과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조절 곤란의 성차가 확인된 선행연구[1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에서는 취업스트레스만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취업스트레스를 더욱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43]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학년의 차이와 성차를 통제하기 위하여 학년과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취업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을 야기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취업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으로 향하는 직접 경로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문제 1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7]를 지지하며,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추가로 설정하여 검증하였고, 보다 간명한 연구모형인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기존 선행연구[7]보다 1종 오류의 가능성을 낮추었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는 신체화 증상을 야기하며 이는 성차와 관련 없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취업스트레스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매개로 하여 신체화 증상을 야기하는지 확인한 결과 취업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사이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2는 지지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47,48]에서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유사한 개념인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스트레스를 야기한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결과 취업스트레스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야기하는 것으로, 기존 선행연구들과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은 계속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경쟁해야 하는 취업이라는 관문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몰입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취업스트레스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신체화 증상을 야기하는지 확인한 결과 취업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사이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3은 지지되었다.

다섯째, 취업스트레스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신체화 증상을 야기하는지 확인한 결과 취업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정서조절곤란의 인과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 따라서 연구문제 4는 지지되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경쟁모형은 취업스트레스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변인이 개별적으로 정서조절곤란을 매개하여 신체화 증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취업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직접 경로를 설정한 연구모형과의 비교검증에서 연구모형이 더욱 좋은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연구문제 5는 기각되었다. 이는 스트레스와 자의식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33,46]를 일부 지지하며, 취업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외부 환경적인 문제나 타인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자기몰입에 빠지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신체화 증상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코로나 19 로 인하여 경기침체와 취업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극심한 취업스트레스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심리적 문제들을 탐색하였다. 또한 문제변인 간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취업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과 순차적인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최근에서야 두 변인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어떠한 심리적 기제들이 작동될 수 있는지 연구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서적 기제와 관련된 연구만 진행되고 있어 인지적 기제가 두 변인 사이에서 작동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에서 신체화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라는 인지적 기제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취업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는 임상 장면에서 취업스트레스

가 높은 사람들이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이들을 깊이 이해하고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인 문제에만 과도하게 몰입하고 외부로의 주의전환을 어려워하며 이러한 성향을 보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억제하여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보이며 결국 신체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취업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본인의 실패에 대해서 과장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초기에 다루면 신체화 증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등의 정서조절전략을 함께 훈련 시키는 것이 신체화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전남, 광주, 경기, 서울 지역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후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을 비롯한 사회초년생에게 주로 발생하지만 현재 만성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으로 인식된 고용불안의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연령층에서 취업스트레스를 호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표본의 연령층을 넓혀서 성인기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취업스트레스 하위 척도 중 학교환경 척도는 학교 수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으로 대학의 평판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문항을 제거하거나 통제변인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대상의 설문 문항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반응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후속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피검자들의 응답반응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에서 사용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척도의 문항들이 주로 사회적 상황에 국한되어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신체화 증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신체적인 문제에 초점화 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일반

적인 상황과 신체문제에 초점을 맞춘 부적응적 자기초점 주의를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취업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의 관계에서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변인들을 탐색하고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매개변인을 찾고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 반복 검증을 통해 취업스트레스의 어떤 요인이 신체화 증상을 야기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취업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신체화 증상을 드러내지 않도록 치료적 개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REFERENCES

- [1] J. M. Kim. (2020). 39.5% of job seekers "extreme job stress in the aftermath of Corona 19". Newsis. <http://www.newsis.com>
- [2] K. H. Kim. (2020). Recruitment of new employees decreased by 44% this year due to Corona 19. Chosun Ilbo. <https://www.chosun.com>
- [3] S. K. Kim. (200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llege Life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New College Students. *Illibnonchong*, 8, 9-34
- [4] S. W. Hwang (1998). *A Study on the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Busan.
- [5] S. Son. (2018).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ncour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Gwangju.
- [6] J. H. Ryu & T. S. Kim. (1998).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employment stress and stress coping style. *Hanyang University Student Life Counseling Institute*, 16, 211-232.
- [7] M. Y. Kim. (2019). *The Effect of Job-seeking stress on Somatization Symptoms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Beliefs about Emotions*.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Gwangju.
- [8] H. Ji. (2011). A Study on the Emotional, Cognitive and Social Variables for Somatization by Developmental Stage: cognitive and social factor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9] K. I. Kim, H. Won, X. Liu, P. Liu & K. Kitanishi. (1997). Students' stress in China, Japan, and Korea: A Transcultur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43(2), 87-94.
- [10] M. Swartz, D. Blazer, L. George & R. Landerman. (1986). Somatization disorder in a community population. *Am J Psychiatry*, 143(11), 1403-1408.
- [11] S. G. Min. (1989). A study on the concept of fire disease, *Neuropsychiatry*, 28(4), 604-616.
- [12] L. A. Allen, R. L. Woolfolk, J. I. Escobar, M. A. Gara & R. M. Hamer. (2006).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somatization disorder: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6(14), 1512-1518.
- [13] G. R. Smith, R. A. Monson & D. C. Ray (1986). Patients with multiple unexplained symptoms: their characteristics, functional health, and health care utilization.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46(1), 69-72.
- [14] S. H. Yutzy, C. R. Cloninger, S. B. Guze, E. F. Pribor, R. L. Martin & R. G. Kathol. (1995). Somatization disorder: testing a new proposal.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1), 97-101.
- [15] S. J. Kim.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omatization Symptom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Absorp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Master's Thesis. Kwang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16] J. I. Choi. (2019).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y and experience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beliefs and somatization*.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17] C. A. Han.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Somatization Symptoms in College Students: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Gwangju.
- [18] K. L. Gratz & L. Roemer.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 [19] S. J. Lee & M. H. Hyun. (2009). The influence of Emotional Awareness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to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Health*, 13(4), 887-905.
- [20] A. J. Barsky & G. L. Klerman. (1983). Overview: hypochondriasis, bodily complaints, and somatic styl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3), 273-283.
- [21] H. G. Shin & H. T. Won. (199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lexithymia Scale.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linical*, 16(2), 219-231.
- [22] J. W. Han. (1997). *The effect of emotional expression on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23] J. H. Kim. (2016). *The Influence of Implicit Narcissism on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Self-focus and Difficulty in Emotional Regulation*.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 University Graduate School, Jinju.
- [24] Y. A. Kim.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and Social Anxiety: Mediating Effect of Emotion Dysregulation and Safety Behavior. *Korean Society for Data Analysis, 19(4)*, 2121-2134.
- [25] S. T. Kim & S. H. Hong. (2018). The Effects of Self-Focused Atten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on Depression of Adolescent Athletes. *The Korea Journal of Sport, 16(2)*, 667-677.
- [26] J. Y. Lee.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Focused Attention and Emotion Regulatio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1)*, 113-133.
- [27] A. Fenigstein, M. F. Scheier & A. H. Buss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 [28] J. Y. Lee & S. M. Kwon. (2005).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linical, 24(2)*, 451-464.
- [29] H. G. Shin. (2000). The Effect of Negative Affectivity, Alexithymia, Somato-sensory Amplification, and Somatic Attribution on Somatization: Test of a Linear Mediation Model.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7-32.
- [30] P. M. Salkovskis. (1991). The importance of behaviour in the maintenance of anxiety and panic: A cognitive account. *Behavioural Psychotherapy, 19(1)*, 6-19.
- [31] R. E. Ingram. (1990). Self-focused attention in clinical disorder: Review and a conceptu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 156-176.
- [32] A. Wells & G. Matthews. (1994). *Attention and emotion: A clinical perspective*. Hillsdale, NJ,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33] S. A. Kang & J. R. Son. (1995). The Effects of Attributional Style and Self-Conscious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Events and Depression. *Stress, 3(2)*, 171-180.
- [34] D. D. Burns.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ical Today, 14(6)*, 34-52.
- [35] Y. S. Seo & J. S. Kim. (2009). The Mediating Effects of Shame and Coping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herapy, 21(3)*, 661-682.
- [36] S. M. Jeong & D. G. Lee. (2013). Differences in Passive/Active Procrastination, Happiness, and Depression by the Clusters of Perfectionism in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2)*, 857-875.
- [37] M. G. Park & C. N. Son. (2011). Cognitive Biases, Decreased Attention and Memory in Somatization Groups.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16(3)*, 623-641.
- [38] J. S. Park. (2016). *The modulating effect of somatic symptom attribu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style and somatization symptom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 [39] S. G. Jo. (2015). *The effect of life stress in college students on somatization symptoms: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tate anxiety and the modulating effect of characteristic anxiety*.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Daegu.
- [40]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 [41] Y. Cho & S. Hong. (2013). The new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K-DERS) incorporation method factor.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6(3)*, 192-201.
- [42] P. J. Curran, S. G. West & J. F. Finch.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43] E. Y. Kim. (2020).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employment stress on social media addiction: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Doctoral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Gwanggu.
- [44] R. P. Bagozzi & E. A. Edwards. (1998). Goal setting and goal pursuit in the regulation of body weight. *Psychology & Health, 13(4)*, 593-621.
- [4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 APA.
- [46] J. Ha & H. U. An. (2013). Multiple Mediator Effect of Metacognition on the relation of Perceived Stress, Anxiety and Generalized Problematic Internet Use.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herapy, 25(2)*, 251-273.
- [47] J. Y. Lee & S. Y. Jun. (2020). Mediated Effect of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Clinical Practice Str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 20(10)*, 967-9920.
- [48] A. Y. Jeong, E. H. Kim & H. C. Shin. (2017). The Effects of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Stress on Test Anxiety :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4(3)*, 281-304.

박 성 권(Seong-gwon Bak)

[정회원]



- 2019년 2월 :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학사)
- 2021년 2월 :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석사)
- 관심분야 : 취업스트레스, 신체화 증상
- E-Mail : tjdrnjswlwhs@naver.com

김 해 숙(Hae-sook Kim)

[정회원]



- 1998년 8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2001년 2월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문학석사)
- 2018년 2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트라우마, 심리치료, 범죄심리, 임상심리
- E-Mail : 2015154@honam.ac.kr